

# 나노라

제 11호

일본에서 가장 큰 촌락의 숨겨진 매력 : 도쓰카와무라(十津川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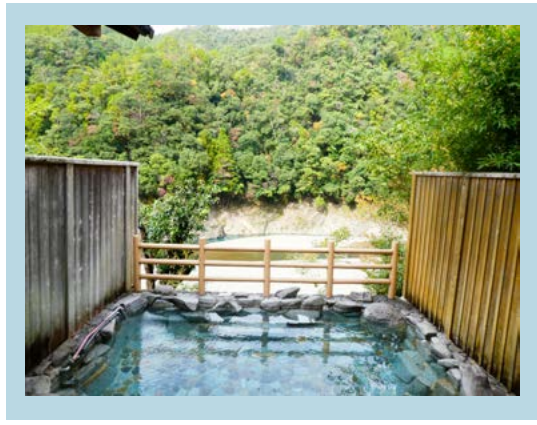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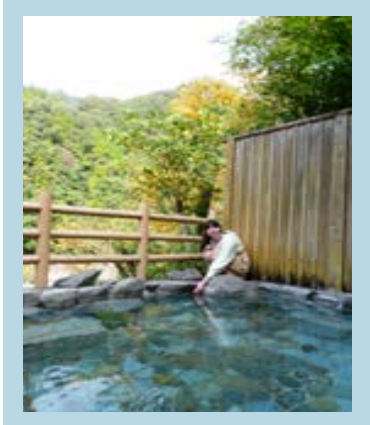
옛날의 도쓰카와무라와 지금의 도쓰카와무라  
~ 온천, 먹거리 그리고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마을 ~

자연과 통하다  
~ 인기명소에서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곳까지 ~

# 옛날의 도쓰카와무라와 지금의 도쓰카와무라

## ~ 온천, 먹거리 그리고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마을 ~

도쓰카와무라는 나라현 최남단에 위치한 일본에서 가장 큰 촌(村)으로 흥미로운 장소가 매우 많은 곳입니다. 취재를 했던 가을에는 이제 막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때여서 초록과 주홍의 대비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도센지온천(湯泉地温泉), 도쓰카와무라 역사민속자료관, 도쓰카와고 휴게소(道の駅十津川郷)를 소개합니다.



### 도센지온천(湯泉地温泉)에서 휴식을 취하다

도쓰카와무라는 온천으로 유명한 곳임을 알고 계신가요? 도쓰카와무라에는 18곳의 온천숙박시설이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이 마을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도센지온천은 유황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상처, 화상, 근육통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도센지온천'에서는 노천탕에 들어가 훌륭한 대자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탈의 실에는 온천의 원천에 대한 설명과 입욕에 관한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일본어로 되어있지만 그림도 있어서 외국인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욕탕에 들어가는 순간 유황 냄새가 풍겨옵니다. 실내욕조와 노천탕 설비도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손으로 온천수를 살짝 떠보니 기분 좋을 정도의 따뜻함이 느껴져 행복해집니다. 조용한 마을 분위기에 더해 온천과 대자연 덕분에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온천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직원분 말씀에 따르면, 해외에서 오는 손님은 적고 대부분이 지역주민들이라고 합니다. 가끔 오사카, 교토 등에서도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도센지온천에서 느긋하게 휴식을 취해보세요.



### 공중욕탕 이즈미유(泉湯) -도센지온천-

〒637-1332 나라현 요시노군 도쓰카와무라 무사시 23 (奈良県吉野郡十津川村武蔵23)  
 • 영업 : 오전10시~오후 9시  
 • 휴업 : 화요일



### 도쓰카와무라 역사민속자료관 : 도쓰카와무라의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다

저는 역사와 옛날 사람들의 생활에 흥미가 있어서 도쓰카와무라 역사민속자료관을 방문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통해 배울수 있는 점이 많았습니다.

자료관은 도쓰카와무라 사무소 앞의 높은 누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료관 안에 들어가면 바로 앞에 커다란 도쓰카와무라의 지형도가 있습니다. 이 지형도를 보면 도쓰카와무라는 평지가 거의 없으며, 현재는 다수의 취락지가 하천 주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쓰카와무라 출신의 유명인물과 쇼와시대 도쓰카와무라 사람들의 생활상 등 전시를 알차게 해놓아 놀라웠습니다.

#### 1. 나라현의 서양화가, 기누타니 고지(絹谷幸二)의 회화

메이지 22년(1889년) 엄청난게 큰 수해를 입어 도쓰카와무라는 괴멸상태가 되었습니다. '도쓰카와에 솟아오르는 태양'이라는 그림은 도쓰카와무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그린 것으로, 대홍수를 입어 훗카이도로 이주한 도쓰카와무라 사람들의 염원과 꿈을 담은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마을을 되살리려는 도쓰카와무라 주민들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 2. 신토쓰카와초(新十津川町)의 기원

나라현의 도쓰카와무라와 훗카이도의 신토쓰카와초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889년 대홍수로 인해 일부 도쓰카와무라 주민들은 새로운 거처와 일 자리를 찾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훗카이도의 미개발 지역으로 이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배로 이주한 마을 주민들은 당시 마을의 인구 12,862명 중 2,667명이나 되었습니다. 훗카이도로 이주한 마을 주민들은 고향을 생각해 자신들이 사는 새로운 훗카이도 땅을 '신토쓰카와초'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기누타니 고지의 회화  
'도쓰카와에 솟아오르는 태양'**



**도쓰카와무라 역사민속자료관**  
〒637-1333 나라현 요시노군  
도쓰카와무라 오히라  
(奈良県吉野郡十津川村小原)

- 개관시간 : 오전9시~오후5시 (입장은 4시까지)
- 휴관일 : 화요일, 12/2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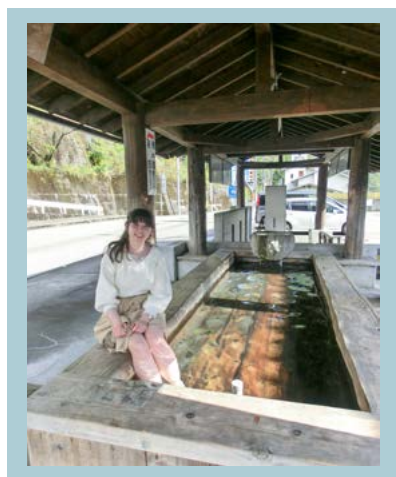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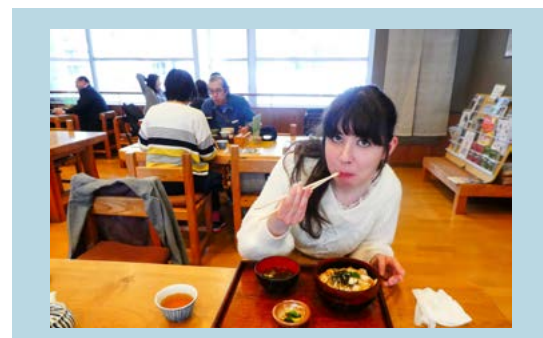
이주는 네 번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메이지 23년(1890년) 최초로 이주한 사람들의 생활은 특히 힘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훗카이도는 매우 추웠으며 미개발 토지를 제공받았을 뿐, 허술한 판잣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5,000평의 토지를 개척하는만큼 자신의 재산이 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황무지를 적극적으로 개척했습니다. 식량도 적어서 바로 수확이 가능한 무와 메밀을 재배해 견뎌냈다고 합니다.

**3.사카모토 료마와 나카이 쇼고로의 관계**

'사카모토 료마'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에도시대 말기에 활약한 무사입니다. 1867년 사카모토 료마가 동료인 나카오카 신타로와 함께 막부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을 무렵 교토의 오우미야(近江屋)에서 암살당한 것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도쓰카와무라의 나카이 쇼고로라는 향사는 나카가와 신타로가 이끄는 리쿠엔타이(陸援隊)의 숙소에서 생활하기도 하여 료마와 만나게 됩니다. 자료관에는 료마가 나카이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에는 료마가 나카이와 친하게 지내고 있었으며, '아오에 요시쓰구(青江吉次)'라는 칼을 보냈다고 적혀있습니다. 칼 자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 편지에서 료마와의 인연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는 칼이 신분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도쓰카와무라의 나카이는 료마에게 소중한 인물이었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신토쓰카와초, 도쓰카와무라와 사카모토 료마와의 관계에 대해, 자료관에서 실제로 전시품을 보고 직원분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더욱 깊게 알 수 있었습니다.



**도쓰카와고 휴게소(道の駅十津川郷) : 맛있는 음식과 이곳만의 토산품**

재미있는 상품이 많은 도쓰카와고 휴게소를 소개합니다. 매장은 크지 않지만, 지역에서 재배한 채소와 먹거리부터 목재를 가공한 특산품인 나무젓가락 등도 있습니다. 내부는 목목조로 따스함이 느껴집니다. 느긋하게 물건을 사기에 좋습니다.

휴게소는 지하2층, 지상 2층의 4층짜리 건물입니다. 우선 1층을 둘러봅니다. 도쓰카와무라산 벌꿀과 버섯 등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많이 있습니다. 향토 요리가 들어간 수제 도시락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감동받은 것은 신토쓰카와초의 상품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토쓰카와초의 '옥수수 초콜릿'과 '멜론 아이스바'는 특히 맛있습니다. 여기서도 신토쓰카와초와 교류가 있음을 느낄 수 있네요.

도쓰카와무라는 목재도 유명하므로 부채, 열쇠고리 등의 잡화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휴게소에서만 파는 '루트 168' 상품을 살 수 있습니다.

2층은 '교젠(行仙)'이라는 소바집이 있습니다. 개방감 있는 점내가 인상적입니다. 메뉴는 소바와 우동이 많은데, 특히 면을 직접 뽑은 수타 소바를 추천합니다. 이외에도 오야코동 등 메뉴가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 저는 오야코동을 추천합니다. 닭고기와 달걀의 조화가 눈물날 정도로 맛있고 밥알도 부드럽습니다. 양도 많아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넓은 창문너머로 훌륭한 경치도 즐길 수 있습니다.

휴게소 앞에는 온천 원천수를 흘러보내는 방식(源泉かけ流し)의 족욕탕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족욕을 하니 쌓였던 피로가 풀립니다. 긴 여정 중 즐기는 족욕은 매우 좋습니다. 휴게소에서 신토쓰카와초의 멜론 아이스바를 드신 후 천천히 족욕을 즐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도쓰카와무라는 멋진 장소가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도 꼭 도쓰카와무라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도쓰카와고 휴게소(道の駅十津川郷)**

〒637-1333 나라현 요시노군  
도쓰카와무라 오히라 225-1  
(奈良県吉野郡十津川村小原225-1)

- 영업시간
- 3월~11월 : 오전8시~오후5시30분
- 12월~2월 : 오전8시30분~오후5시

도쓰카와무라(十津川村)는 나라현 최남단에 위치한 일본에서 가장 큰 촌(村)입니다. 전철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은 자동차 또는 노선버스 밖에 없지만,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이번에는 도쓰카와무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는 '다니제노 쓰리바시(谷瀬の吊り橋)' 현수교와 '세이노노 타키(清納の滝)' 폭포를 소개합니다. 또, 자동차로 관광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 노선버스로 도쓰카와무라를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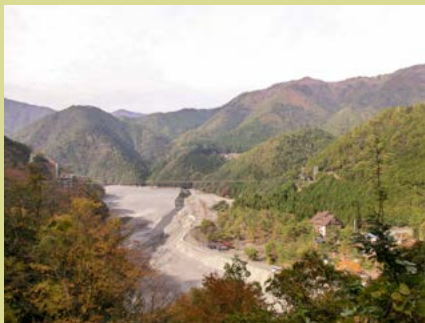
### 다니제노 쓰리바시(谷瀬の吊り橋) - 일본에서 길기로 유명한 스틸 만점의 현수교



도쓰카와무라에는 계곡을 따라 흐르는 구마노강(熊野川)을 건너기 위한 현수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에노지(上野地)와 다니제(谷瀬)를 연결하는 다니제노 쓰리바시(谷瀬の吊り橋)는 높이 54m, 길이 297.7m로 일본 유수의 길이를 자랑하는 현수교입니다. 1954년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마을사람들의 힘으로 만든 현수교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도쓰카와무라 북부에 위치한 다니제노 쓰리바시는 마치 도쓰카와무라의 관문과 같은 느낌입니다. 2017년에는 연간 17만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이 현수교를 방문했을 정도로 도쓰카와무라의 인기 명소입니다. 과거에는 통학로로도 이용되었던 다리입니다. 현재는 다니제 지구에 스쿨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지 않지만, 예로부터 마을사람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다리임은 확실합니다.

이른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관광버스를 타고 온 관광객들이 다리를 건너는 것이 보입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한발짝 내딛어 봅니다. 의외로 튼튼해 보여 한 걸음씩 나아가 보는데, 아래를 보니 나무 판자가 삐거덕 거리는 소리가 나서 조금 무서워집니다.



그러나 고개를 드니 이제 막 물들기 시작한 가을산과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계곡과 흐르는 강의 절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푸른 하늘과 물들기 시작한 단풍을 공중에서 바라보니 매우 상쾌한 기분이 듭니다. 다리 밑에는 강가의 캠프장도 있어서 대자연 속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니제노 쓰리바시에서 대자연과 스틸을 느껴보시는 것은 어떨지요.

#### 다니제노 쓰리바시를 즐기는 Tips!

① 20인 이상이 동시에 다리를 건너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리 위에서 뛰거나 무리하게 흔드는 등의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② 다니제노 쓰리바시 주차장 바로 근처에는 관광안내소가 있으므로 관광책자를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나 특산품 등도 판매하고 있으므로 살짝 배가 고플 때 들러서 쉬어가는 것은 어떨지요. 차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쓰카와무라  
관광협회  
홈페이지



### 다니제노 쓰리바시(谷瀬の吊り橋)

〒637-1106 나라현 요시노군 도쓰카와무라 다니제(奈良県吉野郡十津川村谷瀬)

•시간 : 상시 / 통행료 : 무료

## 세이노노 타키(清納の滝) - 가까이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폭포

도쓰카와무라사무소 산업과 관광그룹의 직원께서 사무소에서 세이노노 타키 폭포까지 자동차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굽이굽이 작은 길을 자동차로 달린지 약 10분, 세이노노 타키의 안내 간판이 보입니다. 차를 세워 숲 안으로 조금 걸으면 계단이 보입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마치 다른 세계를 보는 듯한 광경이 눈 앞에 펼쳐집니다. 넓은 용소와 풍부한 수량이 매우 박력있는 폭포입니다.



폭포 가까이 다가가보니 기분좋은 바람이 불어 폭포수가 불에 닿는 느낌이 시원해 마음이 씻겨내려가는 기분이 듭니다. 멀리서 볼 때와는 달리 폭포수의 색깔이 매우 신비하게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도쓰카와무라의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로 이 폭포를 방문했지만, 사무소 직원이 말씀하시길, 2017년부터 도쓰카와무라의 선전 포스터로도 만들어 홍보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가까이에서 폭포를 볼 수 있습니다!

### 세이노노 타키를 즐기는 Tips!

①낙차는 크지 않지만 넓은 용소와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는 폭포입니다. 울타리가 없어 가까이에서 폭포의 매력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도쓰카와무라의 숨겨진 장소입니다!

②세이노노 타키를 향해 가는 도중에 높은 절벽에서 유유히 떨어지는 가느다란 폭포가 있습니다. 사무소 직원에 의하면,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고 '부동폭포(不動滝; 후도 타키)' 라는 이름의 폭포라고 합니다. 힘차고 박력있는 세이노노 타키와는 달리 유유히 떨어지는 후도 타키의 매력도 즐겨보시는 건 어떨지요.

### 세이노노 타키(清納の滝)

〒637-1442 나라현 요시노군 도쓰카와무라 다카타키 (奈良県吉野郡十津川村大字高滝)

•관람시간 : 자유관람 / 입장료 : 무료



도쓰카와무라  
관광협회  
홈페이지



## 도쓰카와무라를 여행하는 또 하나의 방법!

### 야기신구 특급버스 - 일본에서 가장 긴 노선버스

도쓰카와무라로 가는 방법은 자동차 뿐만이 아닙니다. 자동차로 여행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일본에서 가장 긴 노선버스인 '야기신구 특급버스'로 도쓰카와무라를 즐기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전 노선길이166.9km, 정류장 수167곳,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버스로는 일본에서 가장 긴 주행거리를 자랑하는 노선버스, 바로 '야기신구 특급버스'입니다. 도중에 일본에서 가장 큰 촌(村)으로 알려진 도쓰카와무라, 세계유산 '기이 산지의 영지와 참배길'을 달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온천지도 많이 있습니다.

세계유산을 하이킹하거나 온천에서 지친 몸을 달래는 느긋한 버스 여행은 어떨까요?」

~나라교통주식회사 홈페이지 발췌~

### 야기신구 특급버스로 여행을 즐기는 Tips!

2018년 9월 도쓰카와온천 버스대합실에 '족욕탕'이 생겼습니다!  
버스 여행 중에 족욕으로 조금이나마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시간 : 7:00~18:30 (매일)

야기신구 특급버스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봐주세요.  
(나라교통주식회사 홈페이지)



# 나노라

안녕하세요 .

저희들은 나라현 국제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제교류원입니다 . 나라현과 해외 각국과의 교류를 진전시키는 가교가 되기위해 매일 국제교류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

“나노라” 는 외국인의 관점에서 본 나라현의 매력을 현민여러분과 해외에서 오신 방문객들께 소개하기 위해 저희들이 나라현에서 찾은 매력과 흥미로운 곳을 직접 취재하여 기사로 쓴 것입니다 . 이 정보지를 통해 나라현에 흥미를 갖게되는 계기가 되고 외국인이 느끼는 나라의 매력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편집후기

### 크란시 케이티(사진 왼쪽)

취재때문에 처음 도쓰카와무라에 가본 저는, 도쓰카와무라의 자연에 감동했습니다 . 특히, 단풍이 들 무렵 취재를 해서 산과 나무의 경치가 매우 아름다웠고 주홍과 초록 잎의 조화를 잊을 수 없습니다 . 온천 또한 매우 좋았습니다 . 온천수의 온도가 매우 좋아서 느긋하게 노천탕에 들어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 도쓰카와무라는 매력적인 관광명소가 많으므로 여러분도 꼭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

### 남현정(사진 오른쪽)

나라는 아름다운 자연과 긴 역사를 자랑하는 현이지만, 이번에 도쓰카와무라를 취재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나라, 나라현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 도시부에서 방문하기 쉽지만은 않은 도쓰카와무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방문했을 때 마을의 아름다움과 매력에 벅찬 감동이 느껴집니다 . 도쓰카와무라에 오셔서 그 매력을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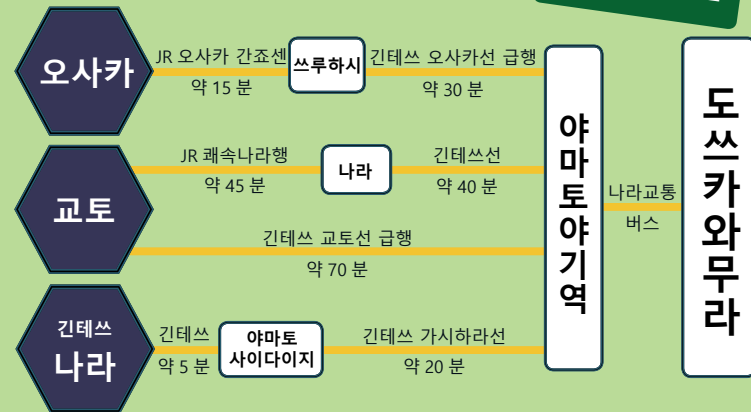
## 이번에 취재한 장소

### 도쓰카와무라



### 전철을 이용할 경우

### 오시는길



###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오사카에서 : 약 2 시간 20 분 (168 일반도로이용)  
 교토에서 : 약 3 시간 (168 일반도로이용)  
 나라에서 : 약 2 시간 10 분 (168 일반도로이용)

### Special Thanks

이번 취재에 협력해주신 도센지온천, 역사민속자료관, 도쓰카와고 휴게소, 도쓰카와무라 사무소, 나라교통주식회사, 도쓰카와무라의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

### 나노라

발행처 : 나라현 지사공실 국제과  
 발행 : 2019년 3월  
 본지에 관한 의견,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곳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630-8501) 나라시 노보리오지초 30 나라현 지사공실 국제과  
 〒 630-8501 奈良市登大路町 30 奈良県知事公室国際課  
 TEL : 0742-27-8477  
 FAX : 0742-22-1260